

위 | 11월 10일 오후 3시,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썰을 증정하고 있다.

아래 | 협회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썰 증정식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준 홍보대사 박준형, 선우옹녀, 그리고 이날 썰 증정식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, 김성규 회장, 김성권 사무총장과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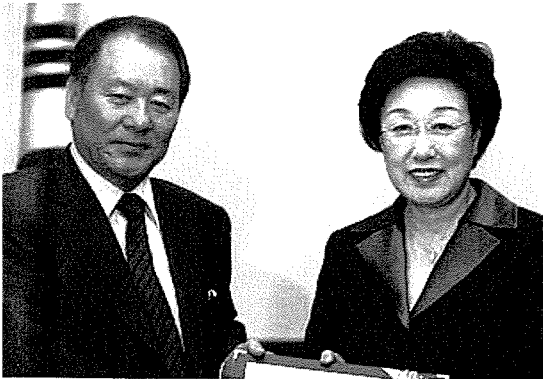


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에 크리스마스 씬 증정

지난 11월 10일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협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준형, 텔런트 선우 용녀 씨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. 노 대통령은 대한결핵협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결핵 예방과 퇴치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, 홍보대사와 함께 결핵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.

11월 17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한명숙 국무총리를 차례로 방문,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였으며, 23일에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였다.

1957년, 오랜 외국생활을 통해 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씬을 증정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제 대통령과 3부 요인 씬 증정행사는 50년간 행해온 오랜 전통이 되었다. 卍



왼쪽 | 김성규 본회회장이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고 있다.(11월 17일 오후 5시 30분)

아래 왼쪽 | 김성규 본회회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만나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고 있다.(11월 17일 오전 11시)

아래 오른쪽 | 김성규 본회회장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크리스마스 씬을 증정하고 있다.(11월 23일 오후 3시)

